

# NATO 코드명과 러시아(구소련) 항공기의 이름에 대해...

| 편집실 |

매체에서 외국 항공기, 특히 러시아(구소련)의 항공기를 지칭할 때, MiG-29 '펄크럼(Fulcrum)', Mi-24 '하인드(Hind)' 등으로 부르곤 한다. 이러한 구소련 항공기의 이름은 서방측의 것과는 다소 다르다.

서방측 항공기의 이름은 군용기인 경우, 제작사 명칭-항공기의 운용용도를 나타내는 기호+코드(모델명칭, 대개 숫자와 영문 알파벳으로 조합되어 있으며 부수적으로 항공기의 특성이나 형식 등을 나타낸다)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별칭 혹은 정식명칭이 붙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Grumman F-14 Tomcat'이란 항공기의 이름을 보면, 제작사인 그라만사(현 노드롭 그라만)의 이름에 전투기(Fighter)를 의미하는 'F' + 모델명칭을 의미하는 코드 '14'로 구성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고양이과의 이름을 붙이는 해군의 관습에 따라 Tomcat이란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방측의 항공기는 그 이름만 보더라도 대강 그 항공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구소련의 항공기는 그 개발과정이나 생산방식이 서방측과는 달라서, 이름이 붙여지는 방식 또한 다르다.

구소련 항공기는 정부나 소요군의 요구에 따라 설계국에서 개발되어 유수의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며, 이때 항공기의 이름은 '설계국을 나타내는 약자+코드'로 구성된다. 이 코드는 주로 개발순서나 설계국에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붙이는 코드이며 숫자로 표시되고 또한 서방측의 경우와 유사하게 항공기의 부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영문 알파벳 조합의 코드가 붙기도 한다.

MiG-29의 예를 들어보자. 설계국인 MiG 설계국(이 설계국의 주역인 미코얀과 구레비치의 약자를 따서 조합)의 MiG+코드 29라는 구성이며 이 뒤에 부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코드가 붙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MiG-29라는 명칭과 함께 펄크럼이라는 이름 또한 잘 알려져 있다. MiG-29라는 이름은 구소련에서 정식으로 명명된 제식명칭이지만 펄크럼은

사실 구소련에서 붙인 것은 아니다. 구소련 항공기의 명칭 뒤에 붙는 이러한 이름들은 미국 및 NATO 등 즉 서방의 정보 체계에서 편의상 붙인 이름으로서 일반적으로 'NATO code name(나토 코드명)'이라고 한다. 러시아 및 구소련 항공기의 NATO 코드명의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투기/공격기	헬리콥터	폭격기/정찰기/전재전기 등	수송기
MiG-15 Fagot	Ka-10 Hat	IL-28 Beagle	An-2 Colt
MiG-17 Fresco	Ka-15 Hen	Tu-16 Badger	An-12 Cub
MiG-19 Farmer	Ka-18 Hog	Tu-22 Blinder	An-14 Cload
MiG-21 Fishbed	Ka-20 Harp	Tu-22M/26 Backfire	An-22 Cock
MiG-23 Flogger B/E/G/K	Ka-22 Hoop	Tu-28 Backfin	An-24 Coke
MiG-27 Flogger D	Ka-25 Hormone-A	Tu-95/142 Bear	An-26 Curl
MiG-25 Foxbat	Ka-27 Helix	M-4 Bison	An-30 Clank
MiG-29 Fulcrum	Ka-50 Hokum	Yak-28 Brewer	An-32 Cline
MiG-31 Foxhound	Ka-52 Hokum-B		An-124 Condor
Su-7 Fitter A	Mi-2 Hoplite		IL-14 Crate
Su-17 Fitter C	Mi-4 Hound		IL-18/20 Coot
Su-15 Flagon	Mi-6 Hook		IL-62 Classic
Su-25 Frogfoot	Mi-8/17 Hip		IL-76 Candid
Su-27 Flanker B	Mi-10/10K Harke		IL-86 Camber
Yak-28P Firebar	Mi-24/35 Hind		Tu-134 Crusty
Yak-38 Forger	Mi-26 Halo		Tu-154 Careless
Yak-41 Freestyle	Mi-28 Havoc		Yak-40 Codling
			Yak-42 Clobber

**참고** Ka-27의 파생형들인 Ka-28, Ka-29, Ka-31, Ka-32 등의 유형들은 모두 동일한 Helix라는 NATO 코드명이 붙여져 있으며 Ka-27의 수출형 버전인 Ka-28은 Helix A, 무장형인 Ka-29는 Helix B라는 NATO 코드명이 붙여져 있다.

## ●● NATO 코드명의 명명방식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는 방식은 비단 NATO 코드명뿐만이 아니라, 2차대전 당시 일본의 항공기에 대해 미국측에서 편의상 붙여 사용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일본 전투기중 가장 잘 알려진 일본 해군의 제로센만 하더라도 실은 '영전(命戰, 즉 0式 戦闘機-일본어 발음으로서는 레이시키 센토키, 혹은 줄여서 레이센이라고 한다)'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를 영어 및 일본어 발음을 혼용하여 제로센이라고 부른 것이다. 제로

센뿐만이 아니라 오스카(Oscar)라고 알려진 일본 육군항공대(JAAF)의 키(키)-43 전투기만 해도 본래 이름은 'はやぶさ(하야부사: 매, Peregrin)'이다.

다시 NATO 코드명으로 돌아가서 1960~1970년대의 냉전기간 동안 구소련은 좀처럼 자신들의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없었고, 심지어는 그들의 항공기가 어떻게 명명되고 불리우는 지조차 서방측에는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대해 NATO는 정보의 갭을 메꾸기 위해 자신들 고유의 명명방식을 만들어 냈다.

NATO는 이 명명방식에 의거해 구소련의 항공기들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 방식은 간단하게도, 전투기 및 공격기 중 '전투(Fight)'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들에는 Fighter의 머릿글자인 F로 시작하는 이름을 붙인다. 그 이름이 갖는 의미는 실제 그 해당항공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지 F로 시작하는 이름'이라는 것 뿐이며 그저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다. 헬리콥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Helicopter의 머릿글자인 H로 시작하는 이름을 붙인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폭격기(Bomber)의 경우는 B, 수송기(Cargo) 등은 C로 시작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 ●● Ka-50/52와 NATO 코드명

비교적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닌 것중에 NATO 코드명에 얽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앞에서 나열한 항공기의 NATO 코드명들을 잘 보면 알겠지만, 그 이름들이 결코 러시아(구소련)인들이 기분좋도록, 멋지거나 용맹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이름들은 결코 아니다. 대부분 구소련의 항공기들을 무시하듯이 비하하는 의미의 단어들인 대부분이다.

근간에 러시아가 신예 공격헬기로서 홍보하고 있는 카모프(Kamov)사의 Ka-50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NATO는 그 전부터 해오던 대로 Ka-50에 호컴(Hokum), 2인승 복좌형인 Ka-52에는 호컴-B(Hokum-B)라는 과연 좋지 않은 이름을 붙

여 놓았고 이 이름이 여러 매체(주로 서방세계의)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카모프사 본사나 러시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NATO 코드명이 실제 이름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현재 이 Ka-50은 러시아측에서는 블랙 샤크(Black Shark, 흑상어)라는 영어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으며(대외적으로), Ka-52는 앨리게이터(Alligator, 악어의 한 종류)라고 부른다. 물론 두 이름 모두 러시아 국내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단어(러시아어)를 사용하지만 Kamov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근래에는 러시아 국내에서도 영어 이름을 그냥 사용한다고 한다. 물론 읽는 방식은 러시아식이다(예: Ka-52 앨리게이터 -Ka-52 알리가또르).

과거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립해오고 견제해 오던 당시에는 정치와 이념상의 '적'에게 굳이 멋진 이름을 붙여줄 리 없음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근래같이 이데올로기가 붕괴됨에 따라 더 이상 러시아의 무기수출 대상국이 이전처럼 바르샤바 조약국만이 아닌 지금, 구태여 NATO에서 붙여 놓은 좋지 않은 의미의 이름을 러시아에서 사용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이처럼 근래에는 그 시장이 서방 및 우리나라에까지 넓혀진 까닭에 러시아에서는 자신들의 항공기에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한 이름을 붙여 홍보하는 점이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다. 하지만, NATO는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름을 붙여 부를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보매체가 정보의 주원천인 탓에 예를 들어, '미그-29는 펄크럼'이라는 식으로 NATO 코드명이 먼저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 펄크럼이라는 이름에 크게 주안점을 둘 필요는 없으며 단지 미국과 NATO가 편의상 붙여 놓은 이름이라는 것이다. 사실 전투기의 경우, 러시아에서는 특별히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따로 이름을 지어 부르지는 않는다. 그냥 미그-15, 수호이-27하는 식으로만 부른다. ☹